

중국기업의 국제회계기준 도입과 보수주의 특성 분석

김동일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Analysis on Chinese companies with Introduction of the IFRS and the Conservatism Features

Dong-II Kim

Dept. of Business Administration, Pusan National University

요약 본 연구는 중국의 국제회계기준의 채택시점을 중심으로 이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보수적 회계처리의 차이점을 확인하기 위해 CSMAR(China Stock Market & Accounting Research)DB를 토대로 2002년부터 2014년까지의 패널 자료를 통해 유의적 차이점을 분석 검증하였다. 기업의 재무적 변화는 일반적으로 회계기준의 변화 시점에서 차이가 나타날 수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보수적 회계처리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를 이해하는 것은 금융거래에 있어서 매우 의미미한 과정으로 볼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주당순이익 및 가격, 주식수익률, 부채비율을 통해 보수성을 측정하였다. 분석결과 보수적 회계처리는 기업회계기준의 도입 이후에 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부채비율이 높을수록 보수적 회계처리 비율이 높은 것으로 분석 되었다. 따라서 특정한 회계기준의 변화 시점에서 기업은 미래금융환경에 대한 불확실성이 증가되거나 신뢰성을 증가시키기 위해 보수적 회계처리를 유인하는 것으로 분석 될 수 있었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회계기준과 준칙 등의 변화에 의한 실무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향후 유사 연구에 유용한 지침을 제공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 된다.

주제어 : 보수주의, 국제회계기준, 주당순이익, 부채비율, 금융지수

Abstract This study analyzed and verified panel data based on CSMAR (China Stock Market & Accounting Research) DB from 2002 to 2014 in order to find out significant differences of conservative accounting before and after Chinese companies adopte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Financial changes in companies can occur at the point of change in accounting standards, and as the difference would affect conservative accounting, it is important to understand conservatism in financial transaction. In this study, earnings per share and price, return on equity, and debt ratio were measured. As a result of analysis, conservative accounting has increased after the introduction of accounting standards, and as the debt ratio was higher, the proportion of conservative accounting was higher. Thus, at a certain point of change in accounting standards, companies apply conservative accounting in order to improve reliability in an unstable future financial environment. Therefore, this study is expected not only to practically influence business practice in changes in GAAP rules but also to provide useful guidance for future studies.

Key Words : Conservatism, IFRS, Earning per share, Debt ratio, Financial index

* 이 논문은 2015년도 부산대학교 인문사회연구기금의 지원을 받아 연구되었음.

Received 11 January 2016, Revised 29 July 2016

Accepted 20 August 2016, Published 28 August 2016

Corresponding Author: Dong-II Kim(Pusan National University)

Email: kdi50@pusan.ac.kr

© The Society of Digital Policy & Management. All rights reserved. This is an open-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ISSN: 1738-1916

1. 서론

최근 중국은 급변하는 금융시장의 변화와 국제화에 따라 안정화와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 국제적 제도를 중국의 금융시장에 맞게 적용하고 있다. 중국은 국제적 금융위기 시점인 2007년 초반부터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을 반영한 새로운 기업회계준칙을 도입하였으며, 국제회계기준의 중요성을 바탕으로 경제개혁의 기본적 틀인 경제적 환경과 대외 개방의 수요를 충족시키기 위해 많은 연구를 집중하고 있다[1]. 또한 2006년 2월 15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제정부에서 국제기업회계기준에 준하는 중국의 기업회계기준(chin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C-IFRS)을 공포한 이후에 국제회계기준을 반영한 기업회계준칙(CAS: China Accounting Standard)을 적용하기 시작 하였다[2].

중국은 회계제도의 개혁과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기업회계준칙을 토대로 국제회계환경에 긍정적으로 접근하기 위한 제도의 정비와 규정의 세분화 작업을 지속적으로 진행하여 2010년에 기업회계준칙 해설을 바탕으로 2012년의 기업회계준칙 해설서 까지 공포하였다. 이러한 노력은 EU뿐만 아니라 세계 여러 나라에서도 중국의 CAS의 국제화 수준을 인정받는데 크게 기여한 주요 요인으로 분석할 수 있다.

금융거래에 있어서 국가 간의 합리적인 거래와 표준화된 회계 준칙을 근간으로 하는 투자와 금융활동이 전개된다 하여도 실무적인 교류에 있어서는 각 국가 간의 재무환경에 따라 편차가 존재할 수 있다. 이러한 편차는 어느 한 요인 보다는 여러 부문에서 기업의 재무적 성과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것이 선행 연구의 공통적인 결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이러한 차이와 서로 다른 실무적 측정치는 국제회계기준서의 재량적 범위로 받아들여질 수 있으며, 가장 크게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부분이 보수주의에 입각한 회계처리 분야로 인식되어 왔다. 특히 여러 연구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와 같이 회계준칙이나 제도의 변화와 변화되는 시점에서 기업의 보수주의와 보수적 특성은 유의미한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 이러한 차이는 일반적으로 재무적 성과에 반영되

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Watts(2003)의 연구에 의하면 보수주의 회계에 대한 회계제정 유인과 과세 등과 같은 특정 부분에 대한 결과는 회계제도와 준칙 등의 변화 시점에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차이가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한바 있다[3]. 따라서 보수주의 특성과 회계제도의 변화는 어느 정도 상관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고 있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 동향은 기업뿐만 아니라 국가적인 차원에서도 회계기준의 변화에 따라 금융환경과 금융시장 그리고 기업의 재무적 지표에 영향을 주고 있기 때문에, 보수주의의 특성은 실무분야뿐만 아니라 학술적 연구범위에서도 매우 주요한 연구 과제라 할 수 있겠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회계준칙의 변화시점에서 유의성을 확인할 수 있는 시점을 중심으로 보수성이 재무적 가치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하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관련변수를 토대로 상관성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또한 연동될 수 있으며 이웃하고 있는 중국과 한국의 경제 재무적 거래와 그 규모를 감안하여, 중국의 금융거래 환경과 회계제도의 변화가 한국의 국제 채택회계기준과 일정부분 융합되거나 차별적인 상황을 만드는데 주요한 지표가 될 수 있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중국의 금융 및 재무적 거래를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은 대 중국과의 금융거래 뿐만 아니라 선진 각국과의 거래에 있어서도 분석적 예측력을 높이는데 유용할 것으로 판단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장 크게 영향력을 가질 수 있는 보수주의를 중심으로 관련 재무지표를 분석하였다. 실증분석에서는 자산, 부채, 주식 수익률, 재무 계약 특성 등의 주요 변수를 투입하여 회계기준의 도입전과 이후에 보수주의의 회계처리에 상대적인 차별성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는 2002년부터 2014년까지 중국의 CSMAR(China Stock Market & Accounting Research) DB의 연도별 패널 분석 자료를 중심으로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병행하여 SPSS(2.0)의 통계적 툴을 이용하여 가설 및 실증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중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 전후에 나타나는 결과가 보수성으로 설명될 수 있는 지를 분석 및 검증한 연구로 향후 다양한 보수주의 연구에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하고 있다.

2. 이론적 배경

2.1 보수주의의 개념

1) 新企業會計準則 (2006年2月16号) 制定后的, 旧企業會計準則 (2006年2月16号) 制定前的

기업의 회계적 거래 측면에서 보수주의(conservatism)의 개념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고 있는 것은 미국의 SFAC No.2(Statement of Financial Accounting Standards No. 2)를 들 수 있다. 즉, 보수주의는 기업이 처한 상황의 불확실성과 위험을 적절히 고려할 수 있도록 불확실성에 대한 신중한 회계처리로 보수주의를 규정하고 있다. 또한 국제회계기준서에서는 보수적 회계처리를 신중성(prudence)의 개념으로 정의하고 있으며, 회계처리에 있어서 불확실한 상황인 경우에 확정적 추정을 위해 자산이나 수익이 과대평가되지 않고 부채나 비용이 과소평가되지 않도록 상당한 정도의 주의를 기울여 계상하는 것으로 그 의미를 해석하고 있다.

선행연구에서 공통적으로 논의 되고 있는 보수주의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첫째, 보수주의는 기업이 순자산을 과대계상하게 되어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으며, 둘째로 보수주의는 경영자의 기회주의적 행동을 줄여 부채와 관련된 부정적 정보와 정확한 정보를 내외부에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셋째, 세금부분에 대해 보수주의는 수익을 이연인식하고 비용은 즉시 인식하여 회계이익을 보다 엄격하게 측정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이익에 비해 손실을 먼저 인식하여 보다 엄격한 이익실현에 대한 수치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4]. 보수주의에 대한 대표적인 연구자인 Basu(1997)는 보수주의에 의한 기업의 상황을 인식할 때 기업이 악재(bad news)에 대해 분석할 때 보다는 호재(good news)를 인식할 때 보다 더 높은 검증가능성을 요구하는 것으로 정의한바 있다. 즉, 이익에 대한 비대칭적 적시성(asymmetric timeliness)과 비대칭적 지속성(asymmetric persistence)을 통해 보수주의의 효과를 검증 분석하기도 하였다[5].

Ball(2000, 2006)은 기존의 연구결과를 토대로 이익에 대한 실현 적시성은 회계이익(accounting income)이 같은 기간의 경제적 이익(economic income)을 포함하는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익의 보수성은 회계이익의 동일기간의 경제적 이득(economic gains)에 비해 경제적 손실(economic losses)을 반영하는 비대칭적 정도를 판별할 수 있는 분석을 제시하였다[6,7].

Zhang(2002)[9]은 보수주의와 회계처리의 연구에서 투자변동이 있는 경우 체계에 따라 보고되는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8]. 이러한 연구에서는 추정부외적립금 등을 순 영업자산으로 나누는 방식으로

C(보수성)점수를 계산하고, 손익계산서는 t연도의 C점수와 t-1연도의 C점수사이의 차이를 분석하여 Q점수를 산출하고 있다. 따라서 산출된 Q값이 양(+)인 경우 보수적으로 해석하고 있다. Givoly and Hayn(2000)의 연구에서는 음(-)의 누적비영업발생액(nonoperating accruals), 이익과 현금흐름의 시계열특성, 증가순자산비율 등의 변수를 통해 이익 손실 기업과 손실의 규모가 큰 경우 절대적인 음(-)의 값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결과는 보고이익의 변동성에 양(+)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2.2 중국의 국제회계기준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은 국제회계기준위원회(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ASC)에 의해 제정된 국제회계기준을 2003년부터 전 세계에 확대 적용한 것이며, 전세계 국가에서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통일된 국제 회계기준으로 이해되고 있다. 중국은 2006년 2월15일에 중화인민공화국 제정부에서 국제기업회계기준에 준하는 중국의 기업회계기준(china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C-IFRS)을 공포하였으며, 2007년 1월 1일부터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시행하여 적극적으로 국제회계기준(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IFRS)에 준하는 회계기준 도입을 권장하고 있다[9,16,18,19,20].

IFRS하에서의 회계처리는 일반 기업뿐만 아니라 중속기업이나 실질적인 경영 의사결정권에 종속되어 있는 경우 연결재무제표를 기본으로 재무보고서를 보고토록 하는 규정에 근거하고 있다. 따라서 IFRS의 주요 특징과 주요한 내용은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에게 기업의 재무상황을 투명하게 분석할 수 있는 기틀과 기업의 내재 가치에 대한 유의미한 투자정보를 적시에 제공하는데 그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IFRS는 기업이 보유하고 있는 모든 금융자산이나 부채의 가치를 공정가액으로 평가할 것을 권고하고 있다.

금융시장의 국제화와 단일화는 전 세계 금융시장에서 활동하고 있는 기업들의 복잡한 거래와 예측가능한 모든 활동에 대해 세부적인 규칙을 제시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거의 불가능하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국제회계기준은 회계처리 적정성을 판단할 수 있는 충분한 원칙과 근거를 제시하는데 주안점을 두고 있으며, 보다 엄밀하고 구체적인 회계처리 방법을 제시하기 보다는 회계전문가가

경제적 사실에 기초하여 일반적으로 받아들여지는 합리성에 기초하여 회계정책을 적용할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Wong(2013)[10] 등의 연구에 따르면, IFRS의 도입 이후에 나타나는 가치 관련성과 보수성이 도입 이전 기간의 보수성에 대한 관련성이 보다 크게 나타나고 있음 보여주고 있다[11]. 이러한 연구는 회계정책적 측면이 보다 강조되고 있는 연구로 볼 수 있다. 또한 Kwanyegyong(2013)은 중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회계제도과 회계기준의 변화와 차이점 등을 토대로 중국국제회계기준의 특성을 중심으로 연구하여 유사한 결론을 얻었다[12].

중국의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따른 보수주의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중국은 성숙된 시장경제체제의 선진국과 다르게 고유의 혼합적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IFRS의 해석이 필요하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중국의 기업회계준칙은 법적인 측면이 다소 강조되어 있어서 법률적인 효력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중국의 회계기준서는 통용되는 용어와 법률용어의 해석과 이해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사례와 범례 등을 통해 이해될 필요성이 있다. 杜興强, 杜穎洁(2010)의 연구에 의하면 중국의 상장기업이 보수적 회계처리에 민감한 것으로 분석하였다. 杜興强은 Basu(1997)의 연구 모형을 이용하여 1998년부터 2008까지 중국 상장회사를 대상으로 분석하였으며, 중국 상장회사의 회계 보수성이 존재할 수 있다는 연구결과를 제시하였다.

2.3 보수주의 검증 모형

Andre(2013)[13], Ahmed(2013)[14]등의 보수주의와 회계준칙의 변화에 대한 연구에서는 보수성을 전제로 보수주의 회계제도를 실현하는 기업의 제공 정보는 투자자에게 보다 적합하다는 결론을 제시하고 있다. 즉, 공정 가치에 의한 평가는 일반적으로 경제적 사건의 결과를 보다 빠르게 반영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IFRS의 도입은 보수주의(conservatism)회계에 영향을 줄 수 있을 것이다. Piot et al.(2011)의 연구에서는 회계준칙의 변화가 보수주의에 음(-)의 영향을 미친다고 분석하고 있지만 일반적으로 보수성은 양(+)과 음(-) 국가적 상황과 연구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고 있으므로 실제적인 연구를 통해 규명하여 자본시장에 맞는 연구결과를 수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Basu(1997)[5]등

의 연구를 중심으로 중국자본시장의 회계준칙의 변화 시점 전과 후의 관계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 모형을 제시하였다.

<산식 1>

$$EPS_{j,t}/P_{j,t-1} = b_0 + b_1DR_{j,t} + b_2RET_{j,t} + b_3DR_{j,t}RET_{j,t} + b_4CASI_{j,t}RET_{j,t} + b_5DR_{j,t}CASI_{j,t}RET_{j,t} + \gamma_{j,t}$$

- $EPS_{j,t}$: 기업 회계연도 t의 주당순이익,
- $P_{j,t-1}$: 기업 회계연도 t-1의 기말 주당주식가격,
- $RET_{j,t}$: 기업 회계연도 t의 누적주식수익률,
- $DR_{j,t}$: $RET_{i,t}$ 가 음일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CASI_{j,t}$: CAS 도입 후 1, 도입 전 0
- $\epsilon_{j,t}$: 오차항.

Andre et al.(2013)은 유럽을 대상으로 IFRS가 보수주의에 어떤 관계에 있는지를 검증하기 위해 제도 도입이나 법적 규제의 요소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얼마간의 차이점을 제시한바 있다. 는 IFRS 도입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일관된 결과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 한국의 경우 주로 IFRS 도입이 회계정보의 가치 관련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나, IFRS 도입이 보수주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산식 2>

$$EPS_{j,t}/P_{j,t-1} = a_0 + a_1DR_{j,t} + a_2RETI_{j,t} + a_3DR_{j,t}RETI_{j,t} + \epsilon_{j,t}$$

- $EPS_{j,t}$: 기업 회계연도 t의 주당순이익,
- $P_{j,t-1}$: 기업 회계연도 t-1의 기말 주당주식가격,
- $RETI_{j,t}$: 기업 회계연도 t의 누적주식수익률,
- $DR_{j,t}$: $RET_{i,t}$ 가 음일 경우 1, 그렇지 않으면 0,
- $\epsilon_{j,t}$: 오차항.

Ball, et al.(2008)은 보수주의는 기업이 신용위험에 처할 때 채권자와 채무이행조항에 따라 기업의 주요한 의사결정에 권한을 이양한 상황으로 분석한 바 있다[7]. 또한 Zhang(2008)에 따르면 보수적인 회계처리의 경우 나쁜 소식을 좋은 소식보다 빨리 인식하게 되어 채무이행

조건을 이수하는데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어 궁극적으로 채권회수의 위험을 줄일 수 있다고 분석하였다[8,1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분석하여 Watt(2003)[4]와 Basu(1997)[5]의 연구모형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보상계약과 채무계약의 변수를 투입하여 채무계약과 보호와 보수주가 어느 정도 상관성이 존재하는지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검증은 중국자본시장의 이해와 더불어 자본거래에 대한 주요한 수치를 한국의 자본시장과 비교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투자와 자본의 회수 등에 의미 있는 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본 분석을 위해 다음과 같이 연구모형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가설은 선행연구를 토대로 산식 1과 2를 토대로 본 연구에 맞게 연구모형을 설계하여 다음과 같이 가설을 설정하였다.

가설 1 : 국제회계기준이 도입되면 회계 이익의 보수성은 정(+)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가설 2 : 국제회계기준 채택기업의 부채 수준이 높을수록 보수성은 정(+)의 관계에 있을 것이다.

3. 실증 분석

3.1 조사 설계

본 연구는 보수주의 회계처리를 분석하기 위하여 중국의 상장기업을 토대로 2007년 이전의 자료와 2009년 이후의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전과 이후에 나타나는 보수적 관련성을 검증하였다. 분석 자료는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2002년부터 2007년의 자료와 2009년부터 2014년의 자료를 통해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전과 도입후의 보수성 회계처리에 대한 유의성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또한 표본의 극단치나 이상 값이 연구의 평균과 표준편차에 미치는 영향을 조정하기 위해 모든 변수의 상 하위 수 1%를 윈조링(winsorizing)을 통해 조정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이상 값으로 인해 연구의 결과에 왜곡되어 반영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을 통해 편애를 줄이기 위해 사용된다.

윈조링을 통한 기초분석결과 중간 값과 평균 그리고 표준편차 등에서 특이 값은 관찰되지 않았다. 본 연구의 모형은 Watt(2003)[4], Basu(1997)[5], Andre(2013)[13]

등의 연구를 토대로 가설 1과 2를 개발하여 각 관련변수를 투입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t년도 말의 주식을 격을 사용하였으며, 기초 기술분석과 회귀분석을 통해 도입 전후의 관계정도를 분석하였다. 분석에 투입된 패널 자료는 중국의 상장기업 자료 CSMAR(China Stock Market & Accounting Research)DB의 연도별 1112개 기업 자료를 통해 실증 분석하였다.

3.2 기초분석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전과 이후의 관계를 분석하기 위해 표본자료에 대한 기초 기술분석을 실시하였다. <Table 1>에서 보는바와 같이 EPS의 주당이익은 .033에서 .048로 다소 변화가 있었다. CAS의 경우 도입 이후 기간의 기초주식가격으로 나눈 주당순이익의 평균DL 이전기간의 평균 비해 크게(.015) 나타났으며, 중위수 역시 위수는 금융위기 이후기간 (.038)이 이전기간(0.033)보다 어느 정도 차이가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즉, 중국 상장기업의 CAS도입 이후기간의 기초주식가격으로 나눈 주당순이익의 값은 이전기간보다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CAS도입 이전기간에는 누적주식수익률이 0보다 큰 집단의 표본 수는 600개로 나타났으며, 0보다 작은 집단의 표본 수는 512개로 분석되었다.

일반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은 시장이 위험회피성향으로 보수적 회계처리를 통해 초기 도입 이후의 일정 시점에서는 호재로 나타나는 기업이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지만, 본 연구에서는 CAS도입 이후에 호재기업이 다소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금융시장에서 보수적 회계처리를 통해 수익이 감소되는 초기 기간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호재기업이 줄어드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3.3 가설 검증

가설 분석을 위해 상관관계분석과 회귀분석을 병행하였으며, 각 관련변수들 간의 관련정도를 추정한 결과가 상관분석과 유사하게 나타난 경우 회귀분석을 통해 가설을 검증하였다.

가설 1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2>와 같다.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산식(산식 1)의 모형을 유도하여 회계기준이 변경된 시점을 중심으로 또한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전과 후를 구분하고 상대적 가치 관련성을

<Table 1> Basic Descriptive analysis of variables and samples

Variable	Sample	Mean	Med.	Mini.	Max.	S.D
EPS/P	1112	0.0337	0.0334	0.00	0.13	0.0268
DR	1112	0.5255	1.0230	0.00	1.01	0.5006
RETI	1112	0.2233	-0.0348	-0.51	2.82	0.6552
DR*RETI	1112	-0.1201	0.0000	-0.53	0.00	0.1406
AD*RETI	1112	0.1359	0.0000	-0.53	2.79	0.5103
AD*RETI*DR	1112	-0.0552	0.0000	-0.53	0.00	0.1443
SD*RETI	1112	0.1467	0.0000	-0.53	2.79	0.5209
SD*RETI*DR	1112	-0.0580	0.0000	-0.53	0.00	0.1342
RET (RETI>0)	600	0.8031	0.4323	0.00	2.82	0.6887
RET (RETI<0)	512	-0.2144	-0.2033	-0.52	0.00	0.11785
ETR*RETI	1112	0.1427	0.0000	-0.53	3.25	0.5457
ETR*RET*DR	1112	-0.0531	0.0000	-0.53	0.05	0.1223
CAS*RET	2432	0.1332	0.0000	-0.50	2.80	0.5562
CAS*RET*DR	2432	-0.0550	0.0000	-0.50	0.00	0.1238
EPS/P(After)2	1112	0.0489	0.0389	0.00	0.17	0.0327
DR	1112	0.4441	0.0010	0.00	1.00	0.5001
RETI	1112	0.2845	0.0547	-0.49	2.87	0.7256
DR*RETI	1112	-0.1201	0.0000	-0.53	0.00	0.1345
AD*RETI	1112	0.1449	0.0000	-0.53	2.79	0.5543
AD*RETI*DR	1112	-0.0592	0.0000	-0.53	0.00	0.1248
SD*RETI	1112	0.1237	0.0000	-0.53	2.79	0.5290
SD*RETI*DR	1112	-0.0540	0.0000	-0.53	0.00	0.1345
RET (RETI>0)	550	0.7097	0.5458	0.00	2.87	0.7007
RET (RETI<0)	562	-0.2258	-0.2567	-0.53	0.00	0.1476
ETR*RETI	1112	0.1437	0.0000	-0.53	3.25	0.5369
ETR*RETI*DR	1112	-0.0581	0.0000	-0.53	0.05	0.1235
CAS*RET	2432	0.1467	0.0000	-0.50	2.80	0.5352
CAS*RET*DR	2432	-0.0560	0.0000	-0.50	0.00	0.1156

Significant p * p<.05, **p<.01, ***p<.001

알아 보기 위해 주당순자산가액과 주당순이익을 비교 분석하였다.

<Table 2>의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RET(.334)와 RET*DR(.283)이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전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계적 처리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회계준칙의 변화에 따라 기업은 회계처리에 엄격함을 통해 향후 전개될 회계변화에 대해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CAS*RET, 그리고 CAS*RET*DR의 결과에서 .098, 167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 이후에는 일정기간은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미래에 평가될 자산에 대한 가치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보수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상충되는 결과로 다양한 준칙을 적용하는 초기 적응기간에 보수적 회계처리를 통해 새로운 회계준칙의 틀에 초기 적용을 위해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초기 적응 기간에서도

보수성이 다소 강화 될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Table 2> Regression of Hypothesis 1

Var.	Exp.	R. Coeff.(t)	P.val.
Inter.		0.052(35.987)***	<0.001
DR		0.015(0.475)	0.687
RET		0.334(9.876)***	<0.001
DR*RET	+	0.283(6.998)***	<0.001
CAS*RET		0.098(1.872)	0.101
CAS*RET*DR	+	0.167(5.776)***	<0.001
N			2224
F			96.732**
Adj. R ²			0.189

Significant p * p<.05, **p<.01, ***p<.001

가설 2에 대한 회귀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다. 가설을 분석하기 위해 산식(산식 2)의 모형을 유도하여 회계기준이 변경된 시점을 중심으로 또한 공정가치 평가를 적용전과 후를 구분하고 상대적 가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주당순자산가액과 주당순이익을 비교 분

석하였다. 분석결과에서 보는 바와 같이 RET(.334)와 RET*DR(.283)이 매우 유의한 결과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결과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이전에 대부분의 기업들은 회계적 처리에 있어서 매우 보수적으로 기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즉, 회계준칙의 변화에 따라 기업은 회계처리에 엄격함을 통해 향후 전개될 회계변화에 대해 대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3〉 Regression of Hypothesis 2

Var.	Exp.	R. Coeff.(t)	P.val.
Inter.		0.043(22.098)***	<0.001
DR		0.091(1.878)*	0.082
RET		0.456(10.246)***	<0.001
DR*RET	+	0.031(0.756)	0.482
AD*RET		0.246(-5.632)***	<0.001
AD*DR*RET	-	0.167(4.676)***	<0.001
N			1112
F			41.687***
Adj. R ²			0.189

Significant p * p<.05, **p<.01, ***p<.001

또한 CAS*RET, 그리고 CAS*RET*DR의 결과에서 .098, 167등으로 나타나고 있는 것은 새로운 회계기준의 도입 이후에는 일정기간은 보수적인 회계처리를 통해 미래에 평가될 자산에 대한 가치를 적절하게 통제하는 것으로 분석된다. 일반적으로 보수성이 낮게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상충되는 결과로 다양한 준칙을 적용하는 초기 적용기간에 보수적 회계처리를 통해 새로운 회계준칙의 틀에 조기 적용을 위해 반응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초기 적용 기간에서도 보수성이 다소 강화 될 수 있다는 결과로 해석된다.

〈Table 3〉의 회귀분석 결과에서 보는바와 같이 AD*RET(-5.63)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통계적으로 유의성이 높게 분석되고 있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증가된 기업군은 낮게 유지하는 기업군 보다 주식수익률의 회계처리에 있어서 다소 보수적으로 처리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결과는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군이 양의 주식수익률보다 음의 주식수익률에 대하여 보다 더 적극적으로 반영될 수 있다는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반면 AD*DR*RET의 경우 .167로 나타나고 있어서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군보다 높은 기업군이 양의 주식 수익률에 비해 음의 주식 수익률에 대해 보다 엄격한 회계 처리를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 될 수 있다.

따라서 가설2의 경우 보수성에 정의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4. 결론

본 연구는 중국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을 전후로 상장 기업의 보수적 회계처리에 대한 성향을 분석하여 향후 한국과 중국기업간의 금융거래에 유의미한 지침을 제공하고자 하였다. 따라서 보수주의에 대한 관련 연구를 종합 분석하여 선행 연구의 연구모형을 중심으로 본 연구에 적합한 연구모형을 제시하여 가설을 설정하고 실증분석을 통해 실증분석을 진행 하였다.

본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첫째로, 보수주의를 적용한 회계처리는 국제회계준칙의 도입전과 후에도 여전히 보수성이 존재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공통적으로 새로운 회계준칙 하에서 보수주의는 미래에 나타날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주요 변수로 확인 할 수 있었다.

둘째로, 보수성과 부채비율과의 영향관계에 있어서도 유의미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즉, 부채 비율이 낮은 기업군은 부채비율이 높은 기업군에 비해 양의 주식 수익률에 보다 더 민감하게 처리할 수 있는 회계처리를 지향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부채비율이 낮은 기업군은 보다 보수적 회계처리를 통해 미래 위험에 능동적으로 대응하는 것으로 분석될 수 있다. 중국과 한국의 경제 재무적 거래 규모 등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시점에서 양국 간의 회계정책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시사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금융거래 환경을 이해하고 전략적으로 분석하는데 도움을 줄 수 있으며, 주요 금융국가간의 거래에 있어서도 분석적 예측력을 높이는 데 유용한 지침이 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본 연구는 통계적으로 유의적인 결론과 변수간의 상관관계가 유지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여러 변수를 통제하거나 유용한 변수를 발굴하여 보다 객관적인 연구를 진행하는데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변수군을 통합적으로 투입하고 임의 통제에 의해 변수에 대한 고유치가 누락되어 결과에 반영될 가능성도 내포 하고 있다. 따라서 향후 연구에서는 이러한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여 보다 유용한 변수 개발에 초점을 두는 연구가 이루어져

야 할 것이다.

ACKNOWLEDGMENTS

This study was supported by the Fund for Humanities & Social Studies at Pusan National University 2015.”

REFERENCES

- [1] Young-ho Moon, “Comparison Study on Difference of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between China and Korea – Focused on Asset items on Statement of Financial Position”, *Korea International accounting Review*, Vol. 50, pp. 323-344, 2013.
- [2] Dong-Il Kim, “Analysis of the Value Relevance on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Fair Value in Chin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2, No 9, pp. 75-81.
- [3] Watts, R. L., “Conservatism in Accounting Part I : Explanations and Implications”, *Accounting Horizons*, Vol. 17 No 3, pp. 207-221, 2003.
- [4] Watts, Ross L., “Conservatism in Accounting, Part II : Evidence and Research Opportunities,” *Accounting Horizons*, Vol. 17, No. 4, pp. 287-301, 2003b.
- [5] Basu, S., “The Conservatism Principle and the Asymmetric Timeliness of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4(December), pp. 3-37, 1997.
- [6] Ball, R., S. P. Kothari, & A. Robin, “The effect of international institutional factors on properties of accounting earning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29, pp. 1-51, 2000.
- [7] Ball, R. and L. Shivakumar, “The Role of Accruals in Asymmetrically Timely Gain and Loss Recognition,”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 44 No 2 , pp. 207-242, 2006.
- [8] Zhang, J., “The Contracting Benefits of Accounting Conservatism to Lenders and Borrowers,” *Journal of Accounting and Economics*, Vol. 46, pp. 27-54, 2008.
- [9] Chinese Ministry of Finance. ASBE 2006~2013 (2) Accounting Division: <http://kjs.mof.gov.cn/>
- [10] Shen Ying, Jin Yan, “Chinese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Difference: A Case Study at fair value” *Intl Accounting Research Vol. No 8*, pp. 337-350, 2009.
- [11] Wong T. J., Danqing Young, “Challenges for Implementation of Fair Value Accounting in Emerging Markets: Evidence from China”, *Contemporary Accounting Research Vol. 29*, pp. 538-562. 2003.
- [12] Gwon yegyeong, “Comparison of Chinese accounting and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established norms and international standards”, *international accounting research*, Vol.9, pp. 481-506 2013.
- [13] Heunggang Doo, Doo younggil, “Accounting standards and accounting of moderation”, *Tianjin University of Commerce Journal*, Vol.3, pp. 9-15 2010.
- [14] Ahmed, A, & S. Duellman, “Managerial Overconfidence and Accounting Conservatism”, *Journal of Accounting Research*, Vol.51 No 1, pp. 1-30, 2013.
- [15] Andre, p, A, Filip, & L. Paugam, “Impact of Mandatory IFRS Adoption on Conditional Conservatism in Europe”, Working paper, ESSEC Business School, 2013.
- [16] Plot, C, P. Dumontier, & R. Janin, “IFRS Consequences on Accounting Conservatism within Europe: The Role of Big 4 Auditors” Working paper, University of Grenoble and CERAG-CNRS, 2011.
- [17] Mi-Lim Chon, “Investment and Debt ratio of ICT firms”, *Journal of the Korea Convergence Society*, Vol. 6, No. 1, pp. 103-108, 2015.
- [18] Young-Mi Baek , “Current status of E-commerce market in China and implication ”,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 13, No. 1, pp.111-124, 2015.
- [19] Young-Hwan Lee, Seon-Hye Jeong, Chenjingzhu, “A Study on the Firm Performance Factor of Cross-border Merger and Acquisition in China”,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 Vol. 13, No. 1, pp.125-134, 2015.
- [21] Jeong-Il Choi, “Convergence analysis about volatility

of the stock markets before and after the currency crisis - With a focus on Normal distribution, kurtosis, skewness”, Journal of digital Convergence, Vol. 13, No. 8, pp. 153-160, 2015.

김 동 일(Kim, Dong Il)



- 1998년 12월 : 명지대학교 대학원 경영학과(경영학박사)
- 1998년 10월 ~ 2000년 3월 : 텍사스 주립대(UTA) ERP센터 연구교수
- 2000년 3월 ~ 2006년 2월 : 국립밀양대학교 회계정보학과 교수
- 2008년 1월 ~ 2010년 1월 : 텍사스 주립대(UTD) 객원교수
- 2006년 1월 ~ 현재 : 부산대학교 경영학과 교수
- 관심분야 : e-Biz, ERP 시스템, SCM
- E-Mail : kdi50@pnu.edu